

아동의 도덕규범과 친사회적 문제행동 상황에서 어머니의 아동역량 판단, 귀인 및 통제*

Mother's Attributions and Control Behavior for
Child's Misbehavior of Moral Norm and Prosocial Behavior*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 신양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부
교수 유안진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 Shin Yangjai

Schools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oo, Anj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mother's control behavior of child's misbehavior within social domain analysis and the framework of attributional models of social 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mpare and contrast maternal attributions and control responses according to child's age and domains of social behavior, and to investigate that mother's social cognition factors(authoritarian attitude and self competence perception) influence maternal inference and responses for their child's acts. Then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mother's attribution would mediate their socialization techniques. For empirical research, 654 mothers with 5·6 year old and 8·9 year old children as subjects answer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child's two domains of misbehavior, there were differences in mothers' attribution and control behavior. Also mothers regarded older child's behavior as more dispositional cause and as more deserving of punishment than younger child's. Second, mother's authoritarian attitude of parenting, self-competence perception, and educational leve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s judgment. Third, the more authoritarian attitude mothers had, the more dispositional factor of children they attributed. And the lower self-competence mothers perceived, the more internal factor of child they attributed. Finally, maternal attributions and control responses are interrelated. When they attributed their children's misdeeds to internal dispositions, they respond with more stronger control behavior. The results suggested maternal social cognition mediate socialization behavior.

I.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아동은 도덕성을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내 상호 작용으로부터 획득하게 된다(Turiel, 1998). 따라서 아동의 도덕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도덕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사회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아동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이유나 근거를 설명해 주는 귀납 방식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견해(Hoffman, 1970; Maccoby & Martain, 1983)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Grusec과 Goodnow(1994)는 부모의 사회화 방식이 아동의 도덕성 내면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귀납 방식이 다른 어떤 방식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모가 어느 한 가지의 사회화 방식만을 주로 사용한다는 가정에서 부모 행동에 접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상황 특성(Grusec & Kuczynski, 1980; Smetana, 1984; Trickett & Kuczynski, 1986)이나, 아동의 성별, 연령 등의 아동 특성(Yarrow, Waxler & Scott, 1971)에 따라 부모가 다양한 사회화 방식을 사용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부모의 다양한 사회화 행동이 어떠한 원인과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Dix, Ruble & Zambardo, 1989).

사회 영역 구분 모형(Social Domain Analysis)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 가능성(Semetana, 1997; Turiel, 1983, 1998)을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연구 패러다임이 되어왔던 Piaget나 Kohlberg 중심의 구조주의적 발달 견해와는 달리, 사회 영역 구분 모형(Social Domain Analysis)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아동의 경험 세계는 도덕, 사회 관습, 개인 영역 등과 같이 서로 구별되는 사회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조성민·이순형, 1998; 최보가·송미화, 1996; Nucci, 1981; Semetana, 1981, 1983, 1997; Tisak & Turiel, 1984; Turiel, 1983, 1998), 아동은 각 영역별로 상이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 영역별로 각기 다른 사회적 지식을 형성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말한 상황 특성에 따라 부모가 다양한 사회화 방식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에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사회 관습 영역이나 개인 영역과 달리 도덕 영역에서는 도덕적 규정을 복지, 정의, 권리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기본적인 보편적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아동의 도덕성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도덕 영역 중에서 도덕 규범(道德規範)은 사회 유지에 있어 기본이 되므로(Turiel, 1983, 1998) 아동의 사회화에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중요시 다루어진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親社會的 行動)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자발적 행동으로서(유안진, 1998a; Durkin, 1995), 특히 친사회적 행동의 내면화된 동기나 가치는 도덕성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Eisenberg & Fabes, 1998). 그런데 도덕 규범 영역(Moral Norm)은 규제적 규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여 규칙, 법, 권위 등의 규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행동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돕기나 나눠주고 같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규칙, 법, 권위자의 지시가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점(Turiel, 1998)에서 볼 때 도덕 규범 행동과는 구별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차이로 인하여 아동은 각 영역별로 상이한 사회화 경험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 영역을 도덕 영역 중에서 도덕규범행동(道德規範 行動)과 친사회적 행동(親社會的 行動)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아동의 사회화 연구에 있어 주목 받고 있는 입장 중 하나는 부모 행동에 대한 인지적 접근(認知的 接近)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인지과정(社會認知過程)이 양육행동을 중재한다는 입장에서 사회화 행동을 설명하려는 것이다(Bugental & Goodnow, 1998). 그 동안 부모의 사회인지가 부모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러 연구자들이 논의해 왔다(Goodnow, 1988; Miller, 1988; Holden & Edwards, 1989). 특히, 사회심리학에서 발전된 귀인 이론(歸因理論)은 아동 사회화 상황에서 진행되는 부모의 인지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Dix & Grusec, 1985; Dix, Ruble, Grusec & Nixon, 1986; Grelsson & Gelfand, 1988; Dix, Ruble & Zambarano, 1989). 즉 귀인(attribution)적 설명은 부모가 아동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과 그 추론 과정이 부모의 아동에 대한 사회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사회화 상황에서의 귀인은 능력과 지식 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상황의 귀인이므로, 귀인 과정에서 지식과 능력을 중요한 단서로 보는 대응추론이론(Correspondent Inference Theory)적 시각이 적절하다(Dix & Grusec, 1985; Dix, Ruble, Grusec & Nixon, 1986; Dix, Ruble & Zambardo, 1989)고 볼 수 있다. 부모 귀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아동의 학업이나 인지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사회 행동에 대한 부모 귀인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

은 편이다(Miller, 1995). 국내의 관련 연구(구순주·최보가, 1996; 박경란·장현숙, 1999; 이은희, 1996)를 보면 개별적인 현상 설명에 그치거나 기존의 귀인적 설명과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 일관된 설명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어린 아동일수록 언어적 통제가 어려운 반면 신체적으로 조절하기가 쉽다고 하여 귀납 방식을 덜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Maccoby, 1984; Park, 1974)가 있고, 이와는 달리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귀납적 설명보다는 야단치기와 같은 강제적 방식을 선호한다는 결과(Kuczynski, et al, 1987)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아동 연령에 대한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Dix와 그의 동료들(1989)은 통제의 강도는 어머니들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인지나 통제력과 같은 역량 평가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귀인과정은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한 아동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연령이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시기인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또한 Scott와 Dembo(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아동 연령의 증가가 문제 행동의 내적 성향 귀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문제 행동의 내용에 따라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행동들에 대한 부모의 판단, 그리고 통제 행동에 있어서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귀인이 구체적인 상황 맥락상의 인지적 과정이라면(Miller, 1985), 이러한 귀인은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안정된 인지 특성, 즉 부모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나 양육 태도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Grusec, Rudy & Martini, 1997). 부모 역량 지각은 부모로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신숙재, 1997; Johnston & Mash, 1989). 귀인의 주체인 부모는 아동의 사회화에 일차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동의 행동과 연

관성이 크다고 지각하기 마련이므로 부모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판단, 즉 귀인 과정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Bugental, Blue & Lewis, 1990; Bugental, Lewis, Cotez, Blue, Fleck, Kopeikin & Lyon, 1993). 이와 더불어 평소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귀인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Dix et al., 1989). 양육 태도는 아동 행동의 지도나 형성을 위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통제 방식에 대한 지향성이다. 특히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엄격한 통제 행동을 중시하며 절대적 기준에 따라 아동을 통제하려는 지향성을 갖는 양육 태도로서, 선행 연구(Dix, 1991; Dix & Reinhold, 1991)를 참고해 볼 때 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개인의 역량이나 책임성을 상당히 달성하기 쉬운 특성으로 지각하게 하는 인지 도식으로 부모의 아동 판단에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응추리론에 근거해볼 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아동 자신이 행동의 효과나 결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행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귀인에 선행된 중요한 사고과정이 된다(Dix, et al. 1986; Dix, et al. 1989). 아동 역량 판단은 사회적 행동 수행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지식이나 그 이해에 대한 아동의 사회인지 역량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으로서 이것은 부모의 귀인과정과 통제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모의 귀인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검증은 서구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대부분이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논의(유안진, 1998b; Chao, 1994; Chen et al., 1998)에 근거해 볼 때, 우리 나라 부모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나 안타깝게도 담보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한편 부모의 통제 행동은 양육 행동의 중요한 두 축이 되는 지지(支持)차원과 통제(統制)차원의 하나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아동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조절하려는 행동이다. 통제 행동은 아동의 문제 행동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인 통제 방식과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제재 정도인 통제 수준의 두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제 방식은 흔히 귀납 방식과 강제 방식 등

의 두 종류로 구별한다. 즉 귀납적 방식은 이유 설명, 칭찬, 추론 등을 제공하는 행동 통제 방법이며, 강제적 방식은 강제력의 직접적이고 임의적인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체벌, 소리지르기, 명령, 언어적 위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논의(Eisenberg & Febes, 1998; Grusec, 1997; Grusec & Goodnow, 1994)에서 통제 방식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역설되었다. 그 중 하나로 귀납 방식과 강제 방식은 각기 다른 측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추론이나 설명은 전달 내용을 정확히 지각하게 하는데 중요하며, 강제적 방식은 아동의 주의를 끌고 전달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통제가 갖는 효과는 전달 내용에 대한 아동의 정확한 지각에 따라 달라지므로(Grusec & Goodnow, 1994), 전달 내용이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절할 때 효과적이다(Eisenberg & Febes, 199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동이나 행동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인지과정은 부모의 통제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제공한 통제 방식이 귀납 방식이든 강제 방식이든 현재의 문제 상황과 잘 조화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므로 행동 영역별로 특정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metana, 1997). 또한 부모의 귀인과 통제 행동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제 행동을 통제 방식과 통제 수준으로 구별해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제 수준이 적절할 때 아동이 갖게 되는 저항이 적어 부모의 통제에 대한 아동의 수용 정도가 높아져서 사회화가 효과를 갖는다(Grusec & Goodnow, 1994)는 점에서 볼 때, 통제 수준을 통제 방식과 구별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 어머니 역량 지각, 아동의 문제 행동 상황에서의 아동 역량 판단(兒童力量判斷), 귀인 및 통제행동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도덕 규범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역 구분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기와 아동기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적인 행동에 많이 관여하는 시기이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행동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판단과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아동이 도덕 규범을 위반한다거나, 친사회적인 행동을 실패하는 문제 행동을 보인 상황에서 아동 역량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아동 행동에 대해 어떻게 귀인을 하여, 어떤 통제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때의 어머니의 귀인과 통제는 어머니의 사회 인지적 특성 변수인 양육 태도와 어머니 역량 지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도덕 규범과 친사회적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과 귀인 그리고 통제는 행동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도덕 규범과 친사회적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통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도덕 규범과 친사회적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과 귀인은 어머니 특성 변수와 관련이 있는가?

넷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 통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만 5, 6세의 유치반 유아와 만 8, 9세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만 5, 6세 유아의 어머니 276명과 만 8, 9세 아동의 어머니 378명으로 총 654명이 연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5.7세이고, 30대가 71.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준은 고졸이 351명(53.4%), 대학 졸업 이상이 255명(39.0%), 중졸이하가 48명(7.3%)이었다. 전업주부가 58.9%이었고, 가계 소득이 평균 226.7만원 정도이었다. 연구에서 귀인 대상이 된 아동의 성별 및 연령

분포를 보면 남자는 323명(49.1%), 여아가 331(50.2%)이며, 연령은 5, 6세가 276명(42.2%), 8, 9세는 378명(57.8%)이었다.

2. 조사 도구

1)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및 통제

이 척도는 관련 선행 연구(Catron & Master, 1993; Dix et al, 1986; Dix et al, 1989; Grusec & Kuczynski, 1980; Mills & Rubins, 1990, 1992; Nucci & Turiel, 1982; Scott & Dembo, 1993)를 기초로 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 상황을 제시하여 상황별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과 귀인, 그리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은 문제 행동에서 아동 자신이 그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해하는지, 또한 그 행동의 효과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 그것을 도모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아동 역량을 판단하게 하는 문항을 각 문제 상황별로 7점 리커트형 척도로 알아 보았다.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28가지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에서 요구하는 사회인지역량에 대해 아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귀인은 각 문제 행동 상황별로 내적성향귀인, 연령귀인, 상황귀인 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내적성향귀인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아동의 이기심, 게으름과 같은 내적 성향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고, 연령귀인은 어머니가 문제의 원인이 아동의 연령이 낮아 발달상의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황귀인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아동의 일시적 상태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점수는 각 상황에서 선택한 귀인 종류에 1점을 주었고, 점수의 범위는 각 귀인 유형별로 0점에서 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귀인 성향이 높은 것을 뜻하게 된다.

어머니의 통제는 제시된 문제 상황에서 어떤 통제 행동을 보일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통제수준과 통제방식의 두 하위 영역으로 되어 있다. 통제

수준은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제재의 정도로서, 7점 리커트로 제시하여 매 문제 상황마다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2점에서 8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통제 방식은 귀납적 방식과 강제적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된 4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문제 상황별로 제시하였다. 점수는 선택한 각 통제 방식에 1점을 주었고, 점수의 범위는 귀납적 방식이 0점에서 4점, 강제적 방식이 0점에서 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통제 방식 선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서 제시된 4가지의 아동 문제 행동 상황은 도덕 규범 위반으로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행동과 친구와 싸우는 행동의 2개 상황,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실패로 어머니를 돕지 않는 행동과 친구에게 과자를 나누어주지 않는 행동의 2개 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재조사법에 의해 측정하였고, 상관계수가 .53에서 .73의 분포는 대체로 조사-재조사간에 상관관계가 신뢰로운 수준임을 보여 준다.

2) 어머니의 양육 태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지향성을 측정하고자, 관련 선행 연구(김지신, 1996; 정정순과 김명분, 1972; Luster et al., 1989; Simons et al., 1993; McNally, Eisenberg & Harris, 1991)를 참고로 하여 양육태도 척도를 구성했다. 분석에서는 엄격한 통제나 강제력 행사를 중요시하는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의 단일 차원 개념으로 어머니 양육태도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했다. 7점 리커트 응답 방식이며, 점수 범위는 8점에서 5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 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 .79이다.

3) 어머니 역량 지각

어머니로서 양육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고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이 개발한 부모역량지각척도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 연구(신 숙재, 1997; Johnston & Mash, 1989)를 기초로 하여 1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응답 결과를 Varimax 방식의 공통요인 분석 방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하여 요인 2개를 추출하였다. 요인 I은 어머니로서의 유능성이나 문제 해결력과 같은 도구적 차원이므로 '어머니 효능감'으로, 요인 II는 어머니로서의 좌절감, 불안감, 동기 등의 정서적 차원이므로 '어머니 만족감'으로 하였다. 척도의 응답은 7점 리커트 형식으로 요인 I과 요인 II의 점수 범위는 각각 6점에서 42점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각각 어머니 효능감은 .86, 어머니 만족감은 .62이 나왔다.

3.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19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초등학교 1개교의 3학년 1개 반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로 한정하였다. 지역적인 편증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5 곳과 초등학교 5 개교를 선정하였고,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5세, 6세 반의 유아 320명과 각 초등학교에서 3학년 2개 반씩을 선정하여 만 8, 9세 아동 472명의 어머니를 조사하였다. 총 792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어 총 74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91부를 제외한 65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적 분석 절차로는 첫째, 아동의 행동 영역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 변수와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그리고 통제간의 관계를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로 살펴보았다. 셋째, 관련 변수들이 어머니의 통제 행동에 주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외에 척도의 구성과 타

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 상관 계수,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행동 영역에 따른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통제

아동의 도덕 규범 위반과 친사회적 행동 실패의 행동 영역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통제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을 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황귀인과 통제 수준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행동 영역별로 모든 변수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어머니들은 도덕 규범에서의 아동역량을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역량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6.39, p<.001$). 또한 친사회적 행동실패에 비해서 도덕규범위반을 보다 내적 성향으로 귀인하였고 ($t=5.11, p<.001$), 친사회적 행동실패는 도덕규범위반에 비해서 연령에 보다 많이 귀인을 하여($t=-6.86, p<.001$), 행동 영역에 따라 어머니의 귀인이 차이가

났다. 따라서 더 높은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는 도덕 규범의 경우 위반에 대해 내적성향귀인이 보다 많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다고 판단한 친사회적 행동은 실패에 대해 연령귀인이 보다 많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 실패의 경우에 귀납적 통제가 보다 많은데($t=-12.20, p<.001$) 반해서, 도덕 규범 위반의 경우에는 보다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경향($t=12.53, p <.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서로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도덕규범 위반인 경우 친사회적 행동실패에 비해 내적 성향 귀인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것은 도덕 규범에 대하여 아동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런 판단 결과로 귀납 방식과 같은 보다 정교화된 통제 노력을 하기 보다는 강제적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 것(Baumrind, 1993; Mills & Rubin, 1990, 1992)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친사회적 행동인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 역량이 낮은 상태로 보았고, 따라서 연령에 귀인시키며, 통제 방식도 강제적 통제 방식보다는 귀납적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덕 규범 영역은 사회체제의 기본적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아동의 사회화에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중요시 다루어진다. 따라서 도덕

<표 1> 행동 영역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 역량 판단, 귀인 및 통제의 t-검증

(N=654)

변수	하위범주	행동 영역	평균	표준편차	범위	t값
아동역량판단		도덕 규범 위반	20.96	4.41	4-28	6.39***
		친사회적 행동 실패	19.78	5.75	4-28	
귀인	내적 성향 귀인	도덕 규범 위반	0.68	0.69	0-2	5.11***
		친사회적 행동실패	0.51	0.66	0-2	
	연령 귀인	도덕 규범 위반	0.28	0.53	0-2	-6.86***
		친사회적 행동실패	0.47	0.64	0-2	
상황 귀인	도덕 규범 위반	1.02	0.72	0-2	0.40	
	친사회적 행동실패	1.00	0.72	0-2		
통제	통제수준	도덕 규범 위반	32.14	5.21	6-42	0.47
		친사회적 행동실패	32.04	6.34	6-42	
	귀납 방식	도덕 규범 위반	1.30	0.63	0-2	-12.20***
		친사회적 행동실패	1.63	0.55	0-2	
		강제 방식	0.68	0.63	0-2	
	친사회적 행동실패	0.34	0.54	0-2	12.53***	

*** $p < .001$

규범은 어린 시기부터 일상 생활에서 강조되어 왔으므로(Gralinski & Kopp, 1993) 이에 대한 아동의 역량 수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높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 규범 행동은 규칙이나 법에 근거하고 있어 보다 명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동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통제가 뒤따를 것이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통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과 귀인 그리고 통제 등이 차이가 나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 역량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은 5, 6세 유아에 비해서 8, 9세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나($F=11.37$, $df=1,652$, $p<.001$), 어머니들은 문제 행동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8, 9세 아동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덕규범위반($F=6.16$, $df=1,652$, $p<.05$)이나 친사회적 행동실패($F=11.58$, $df=1,652$, $p<.001$)의 행동 영역별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은 상황귀인은 다른 귀인 유형에 비해서 연령 집단과 상관없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내적성향 귀인과 연령귀인은 연령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5, 6세 집단에 비해서 8, 9세 집단은 내적성향귀인이 높게 나타났으나($F=20.17$, $df=1,652$, $p<.001$), 연령귀인은 낮게 나타났다($F=39.38$, $df=1,652$, $p<.001$). 이러한 경향은 도덕규범위반과 친사회적 행동실패의 행동영역별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는 5, 6세 유아에 비해서 8, 9세 아동에 대한 통제 수준이 의미 있게 높았다($F=23.57$, $df=1,652$, $p<.001$).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도덕규범위반($F=13.11$, $df=1,652$, $p<.001$)이나 친사회적 행동실패($F=23.28$, $df=1,652$, $p<.001$)의 두 행동 영역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 방식 차이는 5, 6세 유아에 비해서 8, 9세 아동에 대해서 귀납적 방식은 덜 사용하고($F=9.34$, $df=1,652$, $p<.01$), 강제적 방식은 더 자주 사용하는 것($F=12.05$, $df=1,652$, $p<.001$)

<표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귀인, 통제의 일원변량분석 (N=654)

변 수	집 단	도덕규범위반		친사회적 행동실패		전 체		
		평균	F	평균	F	평균	F	
아동역량판단	5, 6세 (276)	20.47		18.90		39.37		
	8, 9세 (378)	21.33	6.16*	20.42	11.58***	41.76	11.37***	
귀 인	내적성향귀인	5, 6세 (276)	.58		.40		.98	
		8, 9세 (378)	.76	10.12**	.58	12.78***	1.34	20.17***
	연령귀인	5, 6세 (276)	.37		.64		1.01	
		8, 9세 (378)	.21	14.53***	.35	34.62***	.57	39.38***
	상황귀인	5, 6세 (276)	1.01		.93		1.95	
		8, 9세 (378)	1.02	.001	1.05	3.66	2.06	1.52
통 제	통제수준	5, 6세 (276)	31.29		30.68		61.97	
		8, 9세 (378)	32.76	13.11***	33.03	23.28***	65.80	23.57***
	귀납적방식	5, 6세 (276)	1.37		1.70		3.06	
8, 9세 (378)		1.24	6.02*	1.59	5.93*	2.84	9.34**	
	강제적방식	5, 6세 (276)	.61		.27		.88	
		8, 9세 (378)	.74	6.83**	.39	8.87**	1.13	12.05***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도덕 규범 위반과 친사회적 행동 실패의 행동 영역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동이 행한 행동 내용뿐만 아니라, 연령과 연관 지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따라서 같은 행동도 어린 아동에 비해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Dix et al., 1989)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여 지식과 통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의도적이라고 보아 그 원인을 내적 성향에 귀인하게 된다(Dix et al., 1986; Dix et al., 1989; Gretaarsson & Gelfand, 1988; Mills & Rubin, 1992).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 효과가 그에 대한 부모의 추론에 의해서 조절되어 통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3. 어머니 특성과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및 귀인

어머니의 특성 변수들이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과 귀인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상황귀인에서만 의미있는 정적 상관($r=.07, p<.05$)을 보였고, 특히 도덕규범위반에서만 정적 상관($r=.07, p<.05$)을 나타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상황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이처럼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귀인의 자기-기여적 편향성때문인 것(Gretaarsson & Gelfand, 1988; Mills & Rubin, 1990; Hirnelstein, Graham & Weiner, 1991)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는 아동역량판단과 정적 상관($r=.18, p<.001$)을 나타냈고, 아동의 행동 영역별 분석에서도 도덕규범위반($r=.15, p<.001$)이나 친사회적 행동실패($r=.16, p<.001$)의 두 영역 모두에서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강할수록 아동의 역량 수준을 더 높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귀인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는 친사회적 행동 실패의 경우에만 연령 귀인과 양육 태도간에 의미 있는 부적 상관($r=-.07, p<.05$)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권위적인 양육 태도가 강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상의 문제를 연령상의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귀인을 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적인 어머니는 아동에게 더

<표 3>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 및 귀인과 어머니 특성변수간의 상관관계 (N=654)

행동영역	변 수	아동역량판단	내적성향귀인	연령귀인	상황귀인
도덕규범 위 반	교육 수준	-.002	-.03	-.03	.07*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15***	.03	-.01	-.01
	어머니 효능감	.16***	-.07*	.02	.06
	어머니 만족감	.07*	-.05	-.02	.07*
친사회적 행동실패	교육 수준	-.01	-.02	-.01	.05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16***	.03	-.07*	.04
	어머니 효능감	.07*	-.08*	.01	.08*
	어머니 만족감	.02	-.04	-.04	.09*
전 체	교육 수준	-.01	-.04	-.03	.07*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18***	.04	-.05	.02
	어머니 효능감	.12**	-.10**	.01	.08*
	어머니 만족감	.05	-.06	-.04	.10**

* $p<.05$ ** $p<.01$ *** $p<.001$

높은 사회 역량을 기대하는 인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어머니의 역량 지각에 있어서 어머니 효능감은 어머니의 아동역량판단과 정적 상관($r=.12, p<.01$)을 보였으나, 어머니 만족감은 의미 있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기 지각에 있어 정서적 차원보다는 도구적 차원이 아동에 대한 판단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행동 영역별 분석에서 도덕규범 영역은 어머니 역량지각의 두 하위 차원인 어머니 효능감($r=.16, p<.001$)과 어머니 만족감($r=.07, p<.05$) 모두에서 의미 있는 상관을 나타낸 바, 이것은 평소 생활에서 아동의 도덕 규범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역량지각과 귀인의 관계에서 먼저, 어머니 효능감은 내적성향귀인과는 부적 상관($r=-.10, p<.01$), 상황귀인과는 정적 상관($r=.08, p<.05$)을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 만족감은 상황귀인에서 의미 있는 정적 상관($r=.10, p<.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효능감이나 만족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을 내적 성향에 귀인 시키는 경향이 감소하고, 아동의 문제 행동 원인을 상황에 두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로서의 역량 지각이 높은 경우일수록 아동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는 선행 연구(Bornstein, et al., 1998)에서 제안하듯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덜 가지게 하여 긍정적인 양육의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4. 어머니의 사회인지와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수준

아동의 도덕규범위반 및 친사회적 행동실패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 어머니 역량 지각, 아동역량판단, 내적 성향 귀인, 연령 귀인 등의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또한 앞의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아동의 행동 영역별로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중회귀 분석을 도덕 규범 위반과 친사회적 행동 실패 등의 행동 영역별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다.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피어슨 상관 계수를 통해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회귀 가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검증치가 유의수준 5%에서 오차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대체로 정규 분포에 가깝고 예측치와 잔차간의 산점도 또한 비교적 양호한 분포를 보였다.

<표 4>에 따르면 아동의 도덕규범위반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beta=.24, p<.001$)의 영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아동역량판단($\beta=.23, p<.001$), 내

<표 4>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 통제수준의 중회귀분석

(N=654)

도덕규범위반			친사회적 행동실패		
관련변수	b	β	관련변수	b	β
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16	(.24)***	1. 아동역량판단	.22	(.32)***
2. 아동역량판단	.13	(.23)***	2.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14	(.18)***
3. 내적성향귀인	.89	(.12)**	3. 내적성향귀인	1.49	(.16)***
4. 어머니만족감	-.33	(-.12)**	4. 어머니만족감	-.45	(-.13)**
			5. 아동의 연령	1.18	(.09)**
상 수		22.17			19.08
F		31.28***			38.99***
R ²		.16			.23

** $p<.01$ *** $p<.001$

적성향귀인($\beta=.12, p<.01$), 어머니 만족감($\beta=-.12, p<.01$) 등의 순서로 어머니의 통제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아동이 도덕규범위반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역량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문제 행동을 내적 성향에 귀인할수록, 그리고 어머니 만족감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통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해준다. 이 4개의 독립 변수들은 어머니의 통제 수준을 16%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실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 수준이 아동역량판단($\beta=.32, p<.001$)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beta=.18, p<.001$), 내적 성향 귀인($\beta=.16, p<.001$), 어머니 만족감($\beta=-.13, p<.01$), 그리고 아동의 연령($\beta=.09, p<.01$) 등의 순서로 영향을 받는다. 즉 어머니가 문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아동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할수록,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일수록, 문제 행동을 아동의 내적 성향에 있다고 귀인 시킬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만족감이 낮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실패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 강도가 증가한다. 이들 5개의 독립 변수는 어머니의 통제수준을 23%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역량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는 더 강력해지게 되고, 또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내적성향으로 귀인하게 하여(Dix, 1991; Dix, et al., 1986, 1989) 이것 또한 강력한 통제를 촉발한다는 것(Baumrind, 1993; Bugental, Blue & Cruzcosa, 1989; Mills & Rubin, 1990, 1992)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도덕규범위반, 친사회적 행동실패 등 두 영역 모두에서 아동역량판단, 내적성향귀인이 모두 영향력 있는 변수로 결과가 나온 것에서 입증되었다 하겠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양육 태도가 아동역량판단이나 내적성향귀인 등의 변수와 마찬가지로 통제 수준에 정적 방향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아동 행동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하

나의 인지도식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논의(Dix, 1991; Dix, et al, 1989; Dix & Reinhold, 1991)로 볼 때,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인지적 요인으로 통제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 만족감은 도덕규범 위반과 친사회적 행동 실패의 두 영역 모두에서 어머니 통제 정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선행 연구(Dix, 1991; Bugental et al., 1989, 1993)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부모로서의 자기 역량을 낮게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화를 잘 내며, 강압적 행동을 자주 사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아동의 도덕규범과 친사회적 행동의 문제 행동 상황에서 행동 영역별로 어머니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떤 통제 행동을 나타내며, 이 과정이 어머니의 사회인지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 보고식의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해 아동 연령이 만 5, 6세인 유아와 8, 9세인 아동의 어머니 총 65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동의 문제 행동 영역별로 어머니의 판단이나 통제에 차이가 있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접근틀로서 사회구분모형(Social Domain Analysis)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아동 역량 판단에 있어서 도덕규범 행동에 필요한 역량을 친사회적 행동에 비해서 아동이 더 잘 갖춘 것으로 보았다. 어머니의 귀인에서는 더 높은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덕 규범의 위반은 내적 성향에 더 자주 귀인시키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다고 판단한 친사회적 행동은 연령상의 제약으로 실패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도덕 규범 위반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제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동이 지내온 이전 경험이 아동 판

단에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정보처리과정(Strassberg, 1995)으로 볼 때, 도덕규범 행동에 대한 요구는 만 3-4세 경부터 일상 생활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고(Granlinski & Kopp, 1993) 이러한 과거 경험들에 의해서 도덕 규범 행동은 그만큼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고 높은 역량을 기대하게 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아동이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도덕규범 행동에서의 아동의 실패는 친사회적 행동의 실패에 비해서 내적 성향 귀인이 더 많이 수반되고, 보다 강제적 통제 행동이 뒤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행동 영역에 따라 아동은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며, 발달의 양상도 다르게 될 것이다(Smetana, 1997). 따라서 사회화 연구에서 아동 행동에 사회영역구분적 접근은 유용하다.

둘째, 어머니의 상황 판단이나 통제 행동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어린 아동에 비해서 연령이 많은 아동이 문제 행동을 나타냈을 때 내적 성향 귀인을 더 많이 하며, 통제에서도 강제적 통제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과 통제 능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그들의 문제 행동을 의도적이라고 보아 그 원인을 내적 성향에 귀인 시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역량이 증가함으로써 나이에 비해 미성숙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것이므로 강력한 통제로 대응한다. 이것은 아동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통제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은 아동 연령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인지가 작용한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 역량지각과 같은 어머니 특성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 행동 상황에서의 판단이나 귀인과 연관이 있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아동의 역량을 높게 기대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를 갖는 부모는 아동의 발달상 제약을 무시하고 아동에 대해 더 많은 역량과 책임성을 기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강제적 통제 방법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정보처리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도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어머니 효능감이 낮을수록 내적 성향 귀인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역량을 낮게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며, 문제 상황에서 책임을 아동에게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어머니 역량 지각은 아동의 문제 행동 상황에서 내적 성향에 귀인 시키는 경향을 강화하게 되어, 그 결과 개선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덜 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것이 예측된다.

넷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은 통제 수준에 영향을 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내적 성향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더 강력한 통제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상황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에 비해서 아동의 역량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실패한 것에 대해 어머니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아동의 내적 성향에 귀인하게 되어 그 결과 통제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론에 의해 아동에 대한 어머니 통제 행동은 어머니의 사회인지 과정에 의해서 조절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론을 일반화하는데는 몇 가지 연구 방법상의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통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귀인을 도출해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으로(Miller, 1995), 이 연구에서는 줄거리가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귀인을 측정함으로써 귀인의 맥락 구속적인 특성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문지 방법에 의한 측정과 동시에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의 관찰 자료를 함께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나타난 귀인과 통제 방식의 적은 점수 범위의 한계를 극복했으면 한다. 그리고 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 통제수준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설명량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이외에 다른 영향변수에 대한 후속 규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 행동의 목적이 아동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과 감정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부모가 좀더 부모 중심의 장기 목적에 관심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의도적이라고 보고 내적 성향에 귀인 시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Hasting & Grusec, 1998)는 결과로 볼 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방향적 접근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어머니 관련 변수에 의한 어머니 효과만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사회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전 경험에 의해서 저장된 기억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적 단서를 여과한다고 한다(Strassberg, 199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상황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보 처리 과정은 어느 정도는 그 전부터 누적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귀인이나 정서 반응은 현재 문제가 된 아동 행동뿐만 아니라, 이보다 선행된 공유된 경험들에 의해서 방향이 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귀인과 같은 상황 구속적인 즉 시적 판단 과정과 비교하여, 이전의 어머니-아동 관계 특성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 연구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유의표집을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이므로 이러한 생태 환경 특성 안에서 결과를 해석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거나, 이후 연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화 상황에서 어머니 귀인의 효과가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 연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학문적, 실제적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부모의 양육 행동에 중요한 중재 요인인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인데 이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내

용에 있어 기초 자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행동 영역에 따라 사회화 경험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연구틀로서 사회 영역 구별적 모형에 대한 적합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이후 연구 방향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실제적 의의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사회 인지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인지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양육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지식을 수정하여 바람직한 부모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구순주·최보가 (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9.
- 2)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3) 박경란·장현숙 (1999).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 성향과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3), 143-156.
- 4)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5) 유안진 (1998a). *인간발달신강*. 서울: 문음사.
- 4) 유안진 (1998b).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5) 이은희 (1996).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 반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2), 31-42.
- 6) 정정순·김명분 (1972).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 77-85.
- 7) 조성민·이순형 (1998). 상황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에 대한 판단. *아동학회지*, 19(2),

- 147-157.
- 8) 최보가·송미화 (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4), 49-62.
 - 9) Baumrind, D. (1993).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A response to Scarr. *Child Development*, 64, 1299-1317.
 - 10) Bornstein, M. H., & Haynes, M., & Azuma, H., & Galperin, C., & Maital, S., & Ogino, M., & Painter, K., & Pascual, L., Pecheux, M. G., & Rahn, C., & Toda, S., & Venuti, P., &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Argentinian,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62-676.
 - 11) Bugental, D. B., Blue, J., & Cru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532-539.
 - 12) Bugental, D. B., & Goodnow, J. J. (1998). Socialization processe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389-462). N.Y.: John Wiley & Sons, Inc.
 - 13) Bugental, D. B., & Blue, J., & Lewis, J. C. (1990). Caregiver beliefs and dysphoric affect directed to difficult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31-638.
 - 14) Bugental, D. B., & Lewis, J. C., & Cortez, V., & Blue, J., & Fleck, K., & Kopeikin, H., & Lyon, J. (1993). Social cognition as organizers of autonomic and affective responses to social challeng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4-103.
 - 15) Catron, T. F. & Masters J. C. (1993). Mothers' and children's conceptualizations of corporal punishment. *Child Development*, 64, 1815-1828.
 - 16)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17) Chen, X., & Hastings, P. D., & Rubin, K. H., & Chen, G., & Stewart, S. L. (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77-686.
 - 18) Dix T. H.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19) Dix T. H.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01-233).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20) Dix T. & Reinhold, D. P. (1991). Chronic and temporary influences on mothers' attributions for children's disobedience. *Merrill-Palmer Quarterly*, 37, 251-271.
 - 21) Dix T, Ruble, D. N., Grusec, J. E., & Nixon, S. (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 *Child Development*, 57, 879-894.
 - 22) Dix T, Ruble, D. N., & Zambaran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23) Durkin, K. (1995).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From infancy to old ag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Ltd.
 - 24) Eisenberg, N. E.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701-777). N.Y.: Wiley & Sons, Inc.
 - 25)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26) Gralinski, H. H.,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73-584.
- 27) Gretar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64-269.
- 28)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9.
- 29) Grusec, J. E. & Kuczynski, (1980). Direction of effect in socialization: A comparison of the parent's verse the child'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1), 1-9.
- 30) Grusec, J. E. Rudy, D., & Martini T. (1997). Parenting cognitions and child outcomes: An overview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pp. 259-282). N.Y.: John Wiley & Sons, Inc.
- 31) Himmelstein, S., Graham, S., & Weiner, B. (199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aternal beliefs about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2, 301-310.
- 32)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2). (pp.261-359) N.Y.: Wiley.
- 33) Holden, G. W., & Edwards, L. A. (1989).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Instruments,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6(1), 29-58.
- 34)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35) Luster, T., & Rhoades, K. (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317-322.
- 36)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Y.:Wiley.
- 37) McNally, S., Eisenberg, N., & Harris, J. D. (1991). Consistency and change in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values: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2, 190-198.
- 38)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39) Miller, S. A. (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40) Mills, R. S.,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41) Mills, R. S., & Rubin, K. H.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Merrill-Palmer Quarterly*, 38, 494-512.
- 42) Nucci, L. P.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43) Scott, J. W., & Dembo, M. H. (1993). Maternal attributions regarding children's noncompliant behavior. *Child Study Journal*, 23, 187-207.
- 44)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45) Smetana, J. 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 development*, 52, 1333-1336.
- 46) Smetana, J. G. (1983). Social-cognitive development: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3, 131-147.
- 47) Smetana, J. G. (1984). Toddler's social interactions regarding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1767-1776.
- 48) Smetana, J. G. (1997).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reconceptualized: A social domain analysis.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pp. 162-191). N.Y.: John Wiley & Sons, Inc.
- 49) Strassberg, Z. (1995).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ompliance situations by mothers of behavior-problems boys. *Child Development*, 66, 376-389.
- 50) Tisak, M. 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51) Trickett, P. K., & Kuczynski, L. (1986). Children's misbehavior and parental discipline in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15-123.
- 52)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3) Turiel, E. (1998). Mor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863-932). N.Y.: Wiley.
- 54) Yarrow, M. R., Waxler, C. Z., & Scott, P. M. (1971). Child effects on adul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5, 300-311.